

### 구미 불로사 어린이 합창단 25일 뮤지컬 공연

## '부처님 오신날' 장애인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 불로사 불미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다.

"부처님 탄생의 기쁨과 큰 뜻을 믿어 불평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요. 포교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7일 구미시 불로사(주지 현오) 법당. 70여명의 불로사 불미 어린이 합창단이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른 뮤지컬 연습에 한창이다. 장반왕 누나역을 맡은 박예진(구미여중)의 말처럼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을 앞두고 송은호(43) 선생님과 어린이들, 스님 모두는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5일 구미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초청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공연을 펼치게 될 불미 어린이 합창단들의 연습에 임

하는 각오와 정성은 더욱 각별해 보인다.

25일 선보일 '부처님 오신날'은 불로사에서 대본, 무대장치, 의상, 연출까지 직접 만든 창작뮤지컬이다. 부처님의 탄생을 둘러싼 주변 이야기를 코믹한 웃음과 감동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이 뮤지컬은 막과 막 사이 불미 합창단의 고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찬불가에서 감동이 절정에 달한다. 특히 부처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막에서는 모든 출연진들이 객석과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을 마련해 장애인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려는 숨은 배려를 느끼게 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절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불평할 때는 아예

3박 4일 째에서 합숙 연습을 하기도 했다. 불미 합창단의 뮤지컬 공연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불로사내 양로원인 불로원에서 펼쳤던 음악공연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자 올해는 더욱 어려운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로 하고 그 대상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로 했다.

연습장을 오가며 소품을 정리하고 막을 여닫는 일을 도와주고 있던 현오스님은 "이번 공연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육체적 불편을 극복함은 물론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으려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부처

님 성장과정에서 열반까지를 창작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날 줄 모르는 연습장을 나서며 자비의 침묵을 전하는 노래말이 긴 여운이 된다.

"자비는 선한 마음~극락은 바로 이 세상~극락은 바로 이 몸! 극락은 바로 이 곳!"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는 중에도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귀한 이때, 25일 펼쳐질 불미 합창단의 뮤지컬 공연은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에 극락을 환형하는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구미=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복지시설 장애인의 날 행사

#### 장애체험·등반대회등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계 각 단체들이 세상나들이, 체육대회, 장애체험, 등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승가원, 연화복지학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원심회 등 교계 장애인시설의 장애인을 초청해 15일 남양주 봉선사로 세상나들이 행사를 개최하며 02-723-5101, 의정부 곰두리네집은 20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정동진으로 여행을 떠난다 031-829-8294, 덕유사회복지관도 24일 강화도 역사관 등을 둘러보는 야유회를 갖는다 032-325-2161.

소죄새마을은 22일 장애인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033-762-9870, 광림사 연화복지학원도 22일 오전 10시 석촌 초등학교에서 청각장애인 체육대회를 연다 02-2202-5831.

경주 장애인복지관은 20일 오후 2

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잡고, 안대를 하는 등의 '장애체험' 행사와 함께 학교 앞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054-776-7522. 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도 21일 오후 10시 제천시내와 시민회관에서 장애인과 일반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체험 및 장애예방 비디오 등을 상영하는 '장애인과의 함께 하는 장애예방 캠페인'을 개최하며 043-652-0900, 대구 점자도서관도 20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행사를 갖는다 053-256-8877.

구미금오복지관은 29일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등반 등산대회를 개최하며 054-458-0230, 대광맹인복지회도 22일 팔공산 갖바위로 산행을 떠난다 053-256-0114. 또 신홍사와 속초종합사회복지관도 26일 관내 장애인들을 초청, 설악산에 오르는 '하나로 장애인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033-631-8761.

한명우 기자

####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 교계 찬-반 엇갈려

네덜란드가 10일 안락사를 합법화함으로써 가톨릭, 시민단체 등이 이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교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안락사가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정태혁 박사(동방불교대학장)는 "안락사는 정신과 육체를 둘로 보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나 스님들도 많다. 법장스님(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안락사를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이 틀어막아 놓은 한 가지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직지사 앞 문화공원

### 김천시, 내년말 완공

경북 김천시가 직지사 일주문 앞에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사하촌 난개발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천시는 12일 직지사 일주문 앞 2만1400평의 부지에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말까지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착공되는 문화공원에는 조각공원과 인공폭포, 조형분수, 산책로, 소나무 숲, 전통 정자, 물레방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천시 도시개발계획과 관계자는 "문화공원 조성으로 일주문 앞 토지 소유자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직지사의 사찰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 기자

#### '제3 수행법' 토론

### 불교포럼·동산불교대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김연규)과 동산불교대학은 24일 오후 7시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제3의 수행법'을 논한다-현대인을 위한 수행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포럼을 갖는다.

이날 포럼은 오원명(명상아카데미)의 기조발제와 종호스님(불국대 선학과), 전재성(한국불교리정협회장), 김연규(위빠사나 지도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02-725-4282 김재경 기자



◀ 생명나눔회는 12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전국인 1인1장기기증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장기기증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선언했다.

#### 생명나눔실천회 '1인 1장기기증 전진대회'

### 시민단체 대표들 잇달아 서약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박상)는 1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창립 7주년을 맞아 '전국민 1인1장기기증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장스님을 비롯해 법타(은혜사 회주), 법등(전 종회의장), 진허(마곡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 청화(중화회부장), 성운(삼천사 주지) 스님 및 서문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교계인사와 이연숙 한나라당 부총재, 김기재 민주당 최고위원, 오장성 건교부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석연 결심원 사무총장,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장

등 7백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직전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종순(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형(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김두선(직식사회 청년연대 대표), 박광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들은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을 서약했다.

법장스님은 축사에서 "전국민 1인 1장기기증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돼 이 땅이 생명을 나누는 불국토로 승화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서정주 시인 유품

### 1만 2천여점

### 동국대에 기증

미궁 서정주 시인이 남긴 유품 1만 2천여 점, 집이 동국대에 자리를 잡았다. 미당의 친동생인 서정재 시인은 10일 동국대를 방문해 (화사집)을 비롯한 유품 1만 2천여 점을 기증했다.

기증된 유품은 미발표 육필원고 30점을 비롯해 도서 4천 300권, 사진 2천 97점, 시집 10권, 제자들의 성적표, 시험지, 영수증 등이다. 또 미당

이 생전에 치매 예방을 위해 외웠던 1천 625개의 산이름이 적힌 원고지 200장을 비롯해 그의 손때가 묻은 책상과 의자, 지팡이, 피리, 양복과 두루마기 등 생활용품도 포함됐다.

서정재 씨는 "유품 가운데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추렸다"며 "유족들도 대학에 보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기증품 전시를 위해 2002년에 완공되는 도서관 안에 '미당 기념 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당이 소장했던 도서는 일반인들에게 대출하고, 희귀본의 경우 복사본을 만들어 대출키로 했다.

오종욱 기자

### 동국대 전자도서관 짓는다

#### 9일 도서관 기공식

#### 2002년 8월 완공

동국대 前 총장, 서문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김종일 중구청장 등 3백 여 명이 참석했다.

도서관은 최근 경향인 전자도서관에 초점을 맞춰, 각 층에 인터넷 전용선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자료 검색이나 영상 정보 열람을 위한 190평 규모의 멀티미디어실과 AV실 등을 갖춘 최첨단 전자도서관으로 지어진다.

오종욱 기자

받은 경우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했을 때 이번 경우는 성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재)은 7일 '헤진스님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반론'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확한 조사없이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말과 추측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헤진스님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 헤진스님 사건 '성폭력' 규정

#### 불교여성개발원 반박성명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운동단체들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헤진스님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자, 불교여성개발원이 반박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헤진스님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과학기술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빛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 / 동서양사상 전문가 · 아보타 마스터 / 임상심리 전문가 겸 정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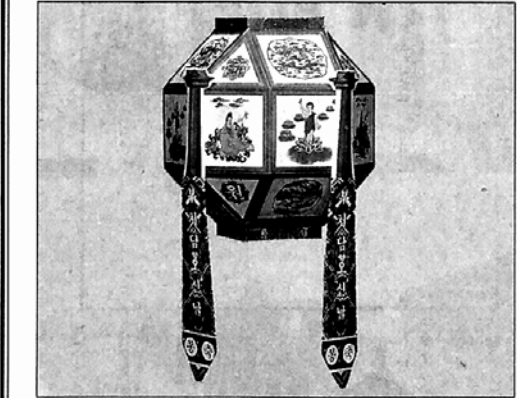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 가격 동결 하였습니다



####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동초별용 8Cm    초별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연동완성품

####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기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복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열」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제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필지 합치 방식)

결합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4P 현우기획**

전화: (02)467-1513 핸드폰: (016)552-9360

###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 사찰 전구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 종류 : 3W, 5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라멘트 6배(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 불제 건전지용 초

-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 5826-236    평생전화 (0502) 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 583-4023    FAX (032) 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 (031) 986-0277~8